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4: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신앙감정론』 제2부(은혜로운지 아닌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넷째 소극적 표지, 인쇄 209~215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웁니다. 감정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감정이 진짜라는 증거도, 가짜라는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두 방향의 잘못을 차례로 바로잡습니다. 첫째는 당시 많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이 밀려온 감정, 성령이 하셨다고 느껴지는 체험은 착각이거나 마귀의 짓”이라고 비웃던 태도입니다. 에드워즈는 이성과 성경(출애굽, 기드온, 다윗, 이방 선교, 에베소서 1장의 기도)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반대편의 착각, 곧 “내가 만든 게 아니니 분명 성령이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 체험은 다른 영, 성령의 구원 아닌 일반적 역사, 몸과 뇌의 약함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판정할 수 없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4(소극): 감정이 내 힘이나 궁리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감정이 은혜로운지 아닌지 어느 쪽의 증거도 못 된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 바깥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것이므로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느낌을 가짜의 증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 바깥에서 오는 힘은 성령만이 아닙니다. 사탄, 성령의 일반적 역사, 몸의 상태도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진짜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 절별 정리

📜 1. 명제 — 양쪽 다 증거가 아니다

에드워즈는 이 장의 명제를 짧게 세웁니다. 감정이 스스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안한 방법이나 자기 힘으로 자극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도'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로 그 감정이 은혜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두 부분으로 짜여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사실을 '가짜의 증거'로 쓰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뒷부분은 '진짜의 증거'로 쓰는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소극적 표지란 이렇게 진짜도 가짜도 판정해 주지 못하는 겉모습을 말합니다.

1. 감정의 '출처가 나 아님'은 판정 기준이 아니다
2. 진짜라는 증거도, 가짜라는 증거도 아니다
3. 장 전체가 두 방향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명제만 세우고, 근거는 뒤의 두 부분에서 제시한다

📜 2. 첫째 오류 — "설명 안 되는 체험은 착각이다"

당시 많은 사람은 체험한 당사자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긴 감정을 정죄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자기 노력의 열매나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바깥의 초자연적 힘에서 왔다고 말하면 곧바로 의심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을 마음으로 '느낀다'는 가르침은 거센 거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지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의 방편(설교, 성경, 성례, 기도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을 쓰시며 우리의 노력과 협력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영향과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주장에도 옳은 면이 있다고 공정하게 인정합니다. 방편을 부지런히 쓰지 않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건너뛰어 직접적인 영적 체험만 좇는 태도)입니다. 성령은 때로 더 비밀스럽고 점진적이며 작은 규모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1. 반대자: 성령은 조용히 일하셔서 구별 불가
2. 느껴진다 하면 “자기 생각이나 마귀”로 몰았다
3. 에드워즈도 방편을 무시하는 건 교만이라 인정
4. 방편 없는 기대는 열광주의라 인정
5. 성령의 방식은 다양하고 때로 점진적이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반대 입장을 소개하고 옳은 부분을 인정하는 단락이다. 성경 반박은 4·5절에서 이어진다

📜 3. 초자연적 힘이라면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에드워즈는 상대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 구원하는 은혜를 넣어 주는 힘은 자연의 힘, 방편의 힘, 우리 힘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분명하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작용하리라 생각하는 것이 왜 불합리하냐고 그는 묻습니다. 체험자가 “이건 내 마음의 자연적 작용이 아니라 다른 분의 능력 같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가짜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누가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즉시 자기 생각이나 마귀에게서 왔다고 단정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합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은혜를 행위자 자신의 힘과 무관한 일들에 비유합니다. 출생, 죽은 자의 부활, 무에서의 창조가 그것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드러나고 영화롭게 됩니다.

1. 은혜는 인간 힘을 넘어서는 힘의 산물이다
2. 그 힘이 느껴지는 건 불합리하지 않다
3. 느낀다는 사실을 가짜 증거로 삼는 건 억지다
4. 은혜는 출생, 부활, 창조에 비유된다

에베소서 1:19~20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같다. 은혜를 부활에 비유하는 근거다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 4. 하나님은 능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에드워즈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당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능력을 꼭꼭 숨기셔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이성이나 계시가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손이 보이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야 함을 분명히 하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게 하십니다. 에드워즈는 그 증거로 구약의 구원 사건들을 듭니다. 이 사건들은 장차 영적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일의 모형(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백성을 먼저 절망적인 처지에 두신 뒤 강한 손과 편 팔로 건지셨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수를 줄이고 나팔·횃불·항아리만 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은 돌과 물매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승천 후 이방 세계를 돌이키실 때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철학자들의 수백 년 노력이 무익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능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의 개인 회심들도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느낄 수 없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드러나는 놀랍고 갑작스러운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로 그런 모습이 속임수와 열광주의의 표지로 여겨진다고 에드워즈는 지적합니다.

1. 능력을 숨기셔야 한다는 성경 근거는 없다
2. 하나님은 손이 보이게 일하신다
3. 목적: 아무도 자랑 못하고 하나님만 높임

5. 신약 회심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였다

고린도전서 1:27~29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11, 2:17

그날에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능력을 드러내시는 목적이다

이사야 2: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4:7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것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사기 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16~20

나팔·횃불·항아리만으로 이기게 하신 기드온 사건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무엘상 17:50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 수단이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드러난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고린도전서 1:21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일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방식과 같지 않다."

📜 5. 에베소서 1장의 기도 — 능력을 '체험으로' 안다

에드워즈는 에베소서 1장 18~19절을 결정적 근거로 듭니다. 바울은 성도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바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능력을 느끼고 지각하고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곧 마음의 자연적 작용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식할 수 없게만 일하신다는 주장은 이 기도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다면 자기가 바깥 능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적 앎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결론짓습니다. 감정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입니다.

1. 바울은 능력을 '체험으로' 알기를 기도했다
2. 체험적 앎 = 느끼고 지각하고 의식함
3. 전혀 못 느낀다는 주장은 이 기도와 충돌한다
4. 그러므로 '내게서 안 났으니 가짜'는 비성경적이다

> **에베소서 1:18**
> 마음 눈을 밝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영적 앎은 실제로 비춰지는 경험이다
>
>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 **에베소서 1:19**
>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 성경의 소원이다
>
>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반대 방향을 다룹니다. 일부러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설명할 수 없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은혜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왔습니다. 세상을 다 줘도 다시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곧장 그것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체험이라고 단정합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무지하고 근거 없는 단정이라고 봅니다. 그 체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 존재에게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영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종종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교묘하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흉내 냅니다. 사탄은 사람의 자발적 마음과 뚜렷이 구별되는 일들을 합니다. 두렵고 끔찍한 생각,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 헛되고 열매 없는 공포를 심습니다. 거짓 기쁨과 위로를 주는 데서도 사탄의 능력은 마찬가지로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독일 재세례파와 다른 열광주의자들이 경험한 황홀한 기쁨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내가 안 만들었다”는 성령의 증거가 못 된다
2. 성령 말고도 마음에 작용하는 영들이 있다
3.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흉내 낸다
4. 사탄은 공포뿐 아니라 거짓 기쁨도 준다
5. 열광주의자의 황홀경도 '내가 만든 것' 아님

> **요한일서 4:1**
>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 출처를 분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고린도후서 11:14**
>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 영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다는 근거다
>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해야 한다.”

📜 7. 성령의 '일반적' 역사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에드워즈는 셋째 가능성을 듭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악한 영에게서 온 것도 아닌 경우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역사란 성령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깨달음이나 감동을 주시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않는 작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한 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 9절은 그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따로 구분합니다. 진짜 성령의 손길을 '맛본' 체험도 그 자체로는 구원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성령의 역사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아닐 수 있다
2. 맛봄과 구원에 속한 것은 다르다
3. 진짜 성령 체험도 그 자체로 구원 증거는 아니다

> **히브리서 6:4~5**
> 비췸·은사·성령 참여·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떨어질 수 있다. 성령의 일반적 역사의 실례다
>
>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 **히브리서 6:9**
>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구분한다. 맛봄과 구원의 경계를 보여 준다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 8. 몸과 뇌의 약함에서도 생긴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직접 작용하지 않아도 그런 체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뇌가 약하거나, 생각과 인상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은 이상한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상상은 강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서 본인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일에 대한 인상에도 쉽게 흔들리는데, 같은 이유로 영적인 인상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에드워즈는 꿈에 비유합니다. 잠든 사람이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듯, 이들은 깨어 있는 동안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인상을 겪습니다. 그러니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는 사실은 출처를 하나님으로 확정해 주지 못합니다.

1. 몸과 뇌의 상태도 강한 인상을 만든다
2.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원인을 설명 못 할 뿐
3. 세상 인상에 약하면 영적 인상에도 약하다
4. 깨어서 꾸는 꿈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관찰과 비유(꿈)로 논증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에드워즈에게 감정은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끌리거나 거부하며 움직이는 깊은 성향의 활동입니다.

소극적 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해 주지 못하는 겉모습입니다. 2부 전체가 이런 표지들을 다룹니다.

설교, 성경 읽기, 성례, 기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해 두신 통로입니다.

열광주의
성경과 방편을 건너뛰고 직접적인 영적 체험과 인상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좇는 태도입니다.

초자연적
자연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느끼고 지각하고 의식하며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반적 역사
성령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않는 작용입니다. 구원하는 역사와 다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함
사탄이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꾸며 성령의 역사를 흉내 내는 것입니다.

모형
구약의 사건이 장차 올 더 큰 구원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고백자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이 참된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설명 안 되면 착각”이라는 비웃음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시고, 성도가 그 능력을 체험으로 알기를 바라신다(에베소서 1:18~19).
- “내가 안 만들었으니 성령”이라는 확신도 근거가 없다. 거짓 영, 성령의 일반적 역사, 몸과 뇌의 약함도 그런 체험을 만든다.
- 그러므로 체험의 출처에 대한 느낌보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는 더 깊은 분별이 필요하다. 그 분별의 기준은 3부에서 제시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6편 · 말이 많아지고 저절로 솟는 감정 · 신앙 이야기와 자가 생산 (표지 3·4)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